

보 도 해 명 자 료

(17. 9. 2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기업 시큰둥한 정부사업에 “돈 보태라” 요구한
산업부(한경 1면, 3면)

1. 기사내용

- 산업부는 정확한 영문도 모른 채 모인 기업인들 앞에서 미래형자동차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애초 계획(180명)보다 500명으로 늘리는 것을 고려 중이라며, 정부 사업에 기업들이 돈을 보태라고 요청했다고 지적
- 또한,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수요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벌여놓고 기업을 동원한다는 느낌이 강했다고 언급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지난 9.15일(금) 미래형 자동차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실무자급 업계 및 전문가(교수 등) 회의를 개최한 것은 사실임.
- 동 회의에 업계에서는 금번 인력양성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자율주행차에 관심이 높은 완성차사 3개사(현대기아/쌍용/르노 삼성)와 IT업체 2개사 실무자가 참석함.
- * 산업부에서는 무보직 서기관/주무관, 업계에서는 부장/과장급 실무자가 참석
- 동 회의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미래형 자동차 전문인력 수요 (산업연구원, 2025년 25,000명 전망)를 고려하여 향후 미래형자동차 전문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하고 산업계 수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실무선에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이 논의되었으며,